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 삐뚤 삐뚤한 글씨로 쓴 탄원서

“어라, 못 보던 고구마네요.”

평소 제가 환우들 위해서 사오던 품종이 아닌, 밤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달콤한 호박고구마가 부식으로 나온 것을 보고 부목사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김\*\*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농사 지신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김\*\* 자매는 아직 30대의 젊은 나이에 말기암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연 기획을 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지만, 암이라는 큰 병 앞에서 더 이상 꿈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자매 어머니는 막내 딸이 시집도 못한 채 투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에 너무 애뜻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김\*\* 자매의 보호자로 오신 어머니께서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하신 아픈 경험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 어머니님 동생 분이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나가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여기서 우리 따님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 예요. 다른 도덕적 요구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는 늘 수줍어하시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결국 어머니께서는 딸을 위해 세례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픈 딸이 병만 나올 수 있다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꺼내 줄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 자매님께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기에, 교육을 맡은 전도사님께 세례 교육이 빠지지 않도록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세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자매님은 병이 점점 중해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사랑하는 엄마의 인생의 세례식이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자매님은 뼈에 전이된 암으로 인해 피가 잘 형성되지 않아 얼굴이 무척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줍은 세례식을 보며 너무나 즐거워서 인지 그 날은 얼굴이 붉은 빛이 돌아 보였습니다. 모든 환우분들이 세례 축하 선물과 꽃다발을 안겨드리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씩스러워하시면서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  
다 쓰러져 가는 어머니(유정옥 사모)와 함께 법정을 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10년간 온 힘을 다해 재판을 해 오셨지만 마지막 선고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알기에, 저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 번 더 상소할 기회는 남아 있었지만, 승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청평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멍하니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 속에서 본 어머니는 수많은 어려움과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도 언제나 굳건하고 당당하게 맞섰었습니다. 마치 한없이 든든한 큰 산처럼 보였던 분이셨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숨겨진 모습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재판 이후, 저는 밤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어머니께서 아이티 선교를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머니의 몸이 상할까 염려되어 차라리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에서 악한 직원에 의해 거짓 고발을 당하셨던 어머니. 그로 인해 매일같이 경찰서에서 고문에 가까운 취조를 받으시며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소중한 사람들 청평 센터를 짓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의 문제 앞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무슨 벌이라도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우들에게 부탁하여 탄원서를 받아 판사님에게 양형을 부탁하는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서울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암 환우분들까지 모두 합쳐도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암 환우들 중에서는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절반이나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함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환우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탄원서를 한 장씩 자필로 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전에 제출해야 하기에, 3일 안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예배 영상을 보고 도와 주신다 해도 편지를 통해 보내야 하니, 저는 애초에 집으로 가신 환우들에게서 탄원서가 올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전 예배를 준비하는데 박이 응성응성 소란스러웠습니다.

“김\*\* 자매님의 어머니님이 오셨네요!”

저는 집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밖에서 이런 대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자매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아무 말없이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김\*\* 자매님은 몇 주 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막내딸을 가슴에 묻고, 깊은 슬픔 속에 계셨던 어머니는 그 슬픔의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는 재판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정옥 사모를 생각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조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고 김\*\*자매 어머니께서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냥 찾아왔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어 간신히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저도 고개를 돌려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서로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저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자매의 어머니를 앞에 두고 대신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딸을 가슴에 묻어두고도 유정옥 사모를 사랑하는 고 김\*\* 자매의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내려간 탄원서까지 합쳐, 총 350여장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이 탄원서들은 유정옥 사모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유정옥 사모가 온 힘을 다해 섬겨 온 삶의 열매가, 단 3일 만에 글이 되어 속속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담긴 탄원서들 중 단 한 장이라도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난 후 서류를 법원에 보내 봅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태양열 손전등 보내기 운동

아이티를 처음 들어갔을 때 가슴 아픈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티 첫 선교사님이신 김용수 선교사님은 나는 이들에게 빛을 주고 싶다고 했다.

빛이 없는 천지는 정말 두렵다.

밤이 되면 자동차 불빛만이 이들을 비춰준다. 그 혼한 가로등 하나가 없다.

아이티의 천막촌은 저녁 5시 30분이 되면 어두움이 찾아온다. 다음 날 해가 뜨는 아침 6시 30분까지 1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앞을 가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이 라고는 천막촌 전체에 흐린 촛불하나 없는 그야말로 암흑천지다. 그 긴 어두움의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보내고 견디어 살까? 살인적인 모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말이다.

그 어두움 속에서 어린 소녀들이 무차별 강간을 당하는 무법 지대의 밤은 무서운 죄악을 짙은 어둠으로 겹겹이 가리고 있다.

네 기둥으로 세운 막대기를 덮은 형겅이나 비닐을 들추면 집안이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그 속에서 성범죄는 얼마든지 일어난다. 13세-16세 어린 소녀들이 임신한 상태로 천막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가 아이기를 잉태케 했는지도 모르는 그 소녀들은 아이를 낙태할 돈이 없어 임신하고 해산달이 되면 아이를 낳는다. 심지어 결혼 할 때 남자들은 아이가 몇이나? 으레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막촌 한 가구당 손전등 한 개 보내기 운동을 했다. 손전등 하나면 책을 볼 수 있는 밝기인데 아이티에 쏟아지고 있는 태양열에 30분만 충전하면 200시간을 쓸 수 있는 양이 충전된다.

동네를 정하여 태양열 충전 손전등 보내기 운동은 계속 되었다.

## 여자 형무소에 의류와 빵, 음료를 보급

포토 프랭스 인근에 여자 형무소에 300명이 수감되어 있다.

처음 이곳에 음식을 줄 단체를 구하는 데 형무소 앞에 음식을 놓고 가라는 것이다.

사진을 찍는 것, 수감자들을 만나는 것을 절대 금지 된 상태다.

누가 어느 단체가 음식만 놓고 갈 것인가?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수감자들은 배고픈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소중한사람들이 맡았다.

형무소 앞에 음식을 놓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수감자 300명이 먹을 빵과 음료를 갖다 주었다. 수감자와 교도관들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면 다 교도관들이 먹지 않겠지 600명분을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아직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주고 소리 없이 간 사람이 누구냐? 두루 찾은 모양이다.

교도소장은 감격하여 음식을 가지고 감옥까지 들어와도 좋고 설교를 해도 좋다고 했다.

우리보고 매일 올 수 없냐고 했다. 그래서 매월 두 번만 간다고 했다.

그래서 들어간 교도소는 정말 눈물 없이는 가지 못할 곳 이었다.

앉을 수 없는 좁은 방에 20명씩 있었는데 오물을 받는 대야가 있었다. 거기다가 대소변을 본다. 수익을 입지 못하고 자기가 잡힐 때 입었던 옷이 그대로 수감자의 옷이었다.

우리는 갈 때마다 옷 500벌과 큰 빵 500개 음료 500개를 들고 갔다.

그들에게 우리는 천사였다. 설교는 프레올(아이티 언어)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가서 눈물로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한 방씩 문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외부인이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가지 않고 우는 소녀들도 있었다.

그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잡혀 올 때 억울하게 잡혀 온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비용이 드는 재판을 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루 2명씩 법률 상담을 해 주는 사역을 시작했다.

수감자들은 격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교도소가 변하기 시작했다. 싸움과 미움 시기와 다툼만 난무했던 곳이

우리가 옷을 준 것을 자기들에 맞게 만들어 입었다. 그 패션이 정말 대단했다.

수세미 뜨개질을 해서 우리가 사오는 것이 되자 그들이 즐겁기 시작했다.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거리를 만나고 다른 수감자들을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법률 상담을 해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송연숙 선교사는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쁜 아이티 선교사가 되어 가고 있었다.

글/ 유정옥

## 소중한사람들 서울역 쉼터(Shelter) 이용안내



### 누가 사용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 쉼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 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쉼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리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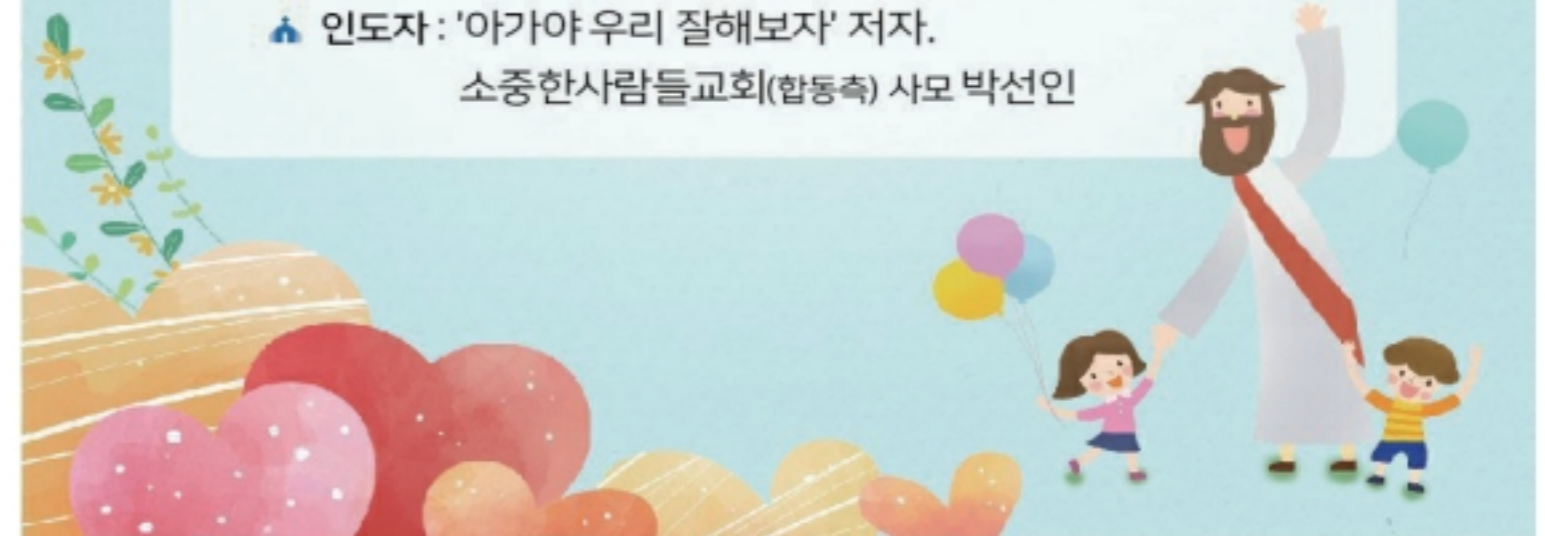


# 소중한 맘 7기 과정에 함께할 분을 모집합니다

- 말씀을 양육에 적용하고싶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모르겠나요?
  -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싶나요?
- 그럼,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양육해 가야 합니다.  
양육의 모든 답은 바로 말씀안에 있습니다  
그 답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이에요.  
저와 함께 답을 찾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길 원합니다

- ▲ 시작일: 3.6 목 오전10시
- ▲ 과 정: 10주과정 (매주 목요일마다)
- ▲ 자 격: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누구나,  
기독교적 양육방법을 알고싶어하는 누구나
- ▲ 비 용: 무료
- ▲ 방 법: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과정
- ▲ 신 청: 카카오톡 anwlro0101 / 010.2125.9106
- ▲ 인도자: '아가야 우리 잘해보자' 저자,  
소중한사람들교회(합동측) 사모 박선인



#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심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심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심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 1. 한\*희(6일간)

맑은 공기, 맛있는 음식, 따스한 웃음, 용기 주시는 말씀, 무엇보다 매일 드리는 두 번의 예배, 열정적인 찬양, 기도,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육, 영이 깊은 심을 얻고 갑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네요. 한 주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심감을 주신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2. 최\*정(6일간)

무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소식지의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고 계산하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고 두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에 기운이 없어서 링거를 맞고 싶었는데 맞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친절한 섬김과 기도 제목의 응답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유정옥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의 답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 3. 김\*순(6일간)

사방이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서 맑은 공기와 시원한 암반수, 그리고 매일 식사 때마다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영혼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첫날에 '오늘 기쁘게 살자, 오늘 제일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너무 행복한 치유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환우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암이 치료되면 치료되는 대로, 안 낫게 되면 안 낫는 대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임에 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4. 박\*희(5일간)

'소중한사람들'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게 하는 하나님 품속 같은 곳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알게 되어 궁금했는데, 재발이 되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암으로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후 감사하게 7년을 잘 살았는데, 2024년에 재발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삶이 덩어리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환우들을 보면서 제 삶이 부끄러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불편해하는 환우들을 이렇게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 5. 정\*윤(6일간)

2~3개월 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소중한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옥 사모님 간증과 이성일 목사님 유튜브 예배를 보면서 많은 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리트릿센터를 방문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목사님과 환우들의 호응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질 정도로 사모함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푸른 자연의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며, 정성이 깊은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영육이 건강해졌습니다. 리트릿센터에 오기 전에는 식사를 하기만 하면 더부룩했는데, 기적의 암반수를 마신 덕분인지 속이 편해져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6. 박\*영(5일간)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5일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거겠구나라고 확신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부드럽지만, 강하고 확신에 차 있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감동의 하모니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의 찬양 소리는 이런 거구나!" 절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어찌나 좋은지, '암에 걸리신 적 없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환우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걸까?' '영을 위해 정말 기도하시는구나' 소중한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암 1차하고 부작용이 속 쓰림, 손 저림, 변비, 두통, 기운 없음 이었는데, 항암 2차를 마치고 이곳으로 왔는데 컨디션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저를 위해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을 예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소중한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 7. 김\*영(5일간)

리트릿센터에 와서 보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따스한 사랑과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을 안아주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품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의 느껴져서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들을 낮과 밤에 꿀잠을 자게 하시더니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만난 주님께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힘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의 맛있는 식사는 은혜요 사랑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섬김에 감사합니다.

#### 8. 황\*희(6일간)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와서 짐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심을 주시나?'하는 생각과 함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이 좋은 공기과 물, 그리고 따뜻한 환우들과의 만남에서 100% 다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을 떠나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공기, 말씀과 중보기도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영육이 강건해 지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2025년 1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 ●확정헌금●

강정운(4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5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전두희(30,000)

### ●목적헌금●

조은래(7,056,122)

### ●천사헌금●

박선영(6,000,000) 장항자(1,000,000) 이경휘(1,000,000) 전영원(1,000,000) 최성숙(1,000,000) 이준환(1,000,000) 김주연(1,000,000)

### ●십일조●

김병식(250,000) 노은순권사아들(294,279) 박용범(460,000) 배운경(60,000) 변영미(500,000) 성혜숙(200,000) 손울선(500,000)  
 심윤화(260,000) 윤두경(200,000) 이성일(300,000) 장은미(62,000) 정은정(100,000) 최영자(130,000) 추연국(170,000)  
 황영자(250,000)

### ●감사헌금●

강금숙(10,000) 광효정(160,000) 구민정(20,000) 구현주(300,000) 권오성(100,000) 김덕용(50,000) 김동일(370,000)  
 김명석(50,000) 김미영(20,000) 김미자(70,000) 김병식(150,000) 김보영(100,000) 김연자(150,000) 김영관(100,000)  
 김용수(100,000) 김은숙(20,000) 김자애(10,000) 김정옥(50,000) 김종수(80,000) 김하영(10,000) 김혜림,김윤재(100,000)  
 김혜영(50,000) 김혜온(20,000) 김화심(200,000) 김흥덕(400,000) 김희경(100,000) 김희석(20,000) 나일주(500,000)  
 류병완(100,000) 문병숙(20,000) 박경애(200,000) 박광숙(100,000) 박봉순(20,000) 박부홍(50,000) 박선미(200,000)  
 박선영(50,000) 박선인(103,713) 박수진(200,000) 방은혜(500,000) 방형덕(30,000) 배운경(500,000) 백인아(20,000)  
 백현미(20,000) 변영미(100,000) 서강일(50,000) 서정민(150,000) 선종석(50,000) 소한태(10,000) 손울선(100,000)  
 송기승(30,000) 신승국(200,000) 신현옥(200,000) 심윤화(30,000) 양경임(50,000) 양정은(200,000) 엄영란(500,000)  
 연영희(10,000) 염애석(10,000) 오임순(20,000) 오정희(30,000) 오종섭(130,000) 원영분(440,000) 유옥열(150,000)  
 유정옥(600,000) 윤상순(50,000) 이경휘(200,000) 이명승(100,000) 이복희(160,000) 이상길(20,000) 이상모(200,000)  
 이상숙(20,000) 이상일(350,000) 이양복(10,000) 이옥경(30,000) 이재희(300,000) 이정호(100,000) 이주희(50,000)  
 이지원(20,000) 이현복(50,000) 이해옥(450,000) 이희경(30,000) 장경순(300,000) 장은미(50,000) 장호형(300,000)  
 전상희(250,000) 전영원(50,000) 전은유(50,000) 정경희(350,000) 정동익(60,000) 정은정(150,000) 정재운(49,000)  
 정종순(400,000) 정현숙(70,000) 조옥선(20,000) 최경순(100,000) 최성숙(300,000) 최승호,최현정(100,000) 최영자(80,000)  
 최영희(10,000) 최정미(200,000) 한창식(300,000) 한혜경(10,000) 허정만(300,000) 허혜영(220,000) 현성원(50,000)  
 황영자(90,000) 황보순(100,000) 황우진(110,000)

### ●기관후원헌금●

(\*)토탈이엔씨(100,000) 가락제일교회(100,000) 계명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 ●CMS헌금●

공은영(30,000) 김명숙(50,000) 김명화(3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영신(30,000) 김운집(30,000)  
 김유진(10,000) 김인경(50,000) 김인열(20,000) 김지영(10,000) 김진영(10,000) 김태희(2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나일주(100,000) 나지용(15,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옥자(20,000) 문화순(10,000)  
 박경미(20,000) 박상준(30,000) 박성환(50,000) 박연정(10,000) 박영자(20,000) 박완준(50,000) 박윤희(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손미경(50,000) 송연숙(50,000) 송필례(30,000) 신은미(30,000)  
 양운정(100,000) 오선희(50,000) 유미형(10,000) 윤성록(50,000) 윤인초(1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민(15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원인(150,000) 이은숙(10,000)  
 이인숙(10,000) 이정자(5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해경(5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승아(10,000) 정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아람(1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진성권(5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하정민(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홍금주(10,000) 황지연(50,000) 황지훈(100,000)  
 황춘희(20,000)

## 청평힐링센터 2025년 1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7,056,122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271,439
천사헌금	6,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713,000
십일조	3,736,279	식자재구입비	11,941,224
감사헌금	15,447,713	전기요금	6,751,690
CMS헌금	1,565,000	가스요금	729,000
		화재보험료	1,200,000
		우편발송비	212,360
		홈페이지/ CMS사용료	460,300
		KT요금	646,600
		비품구입비(소모품)	855,190
		공사비	1,378,000
		세금	57,270
		안전점검비	1,578,000
		급여인건비	17,942,410
		사회보장보험료	1,822,630
금월 수입 합계	33,805,114	지출 총액	47,591,143
전월 이월금	678,921		
차용금	14,000,000		
총 수입 합계	48,484,035	금월 잔액	892,892

###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 강정운(4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5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전두희(30,000)

\* 1월말 현재 총, 148,470,000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5년 1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이민석(10,000) 이성숙(20,000) 이순미(30,000) 주혜선(10,000) 최지임(100,000) 한종석(200,000)

2025년 1월 소나무헌금 지출: 정\*순(658,210) 최\*숙(285,05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에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월 가입자 명단 (7명)

493. 박선영 494. 장향자 495. 이경희 496. 전영원 497. 최성숙 498. 이준환 499. 김주연

###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목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영구	6 김수영	7 심홍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박은희	11 박영희	12 정동경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강희	19 차은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희	23 박재민	24 박순화
25 임종배	26 현영희	27 이영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은수	31 김다영	32 윤철현	33 권동화	34 이혜란	35 전지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정용준	39 이현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성익	43 송영옥	44 최영희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필자	48 김현중
49 김태경	50 최수자	51 윤은	52 최영희	53 최유은	54 최태은	55 박영애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이희진	60 이희진
61 이원영	62 심혜	63 이상수	64 박영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신미	68 김명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영숙	76 이주원	77 변현영	78 배경희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영은	83 신성민	84 정훈기
85 정희정	86 정태은	87 박유정	88 허영중	89 김미연	90 신영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강희	95 박영희	96 홍영주
97 김현숙	98 무영	99 유성진	100 성수희	101 권영희	102 황보은	103 이희영	104 황영희	105 황영희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영연	110 권영희	111 고미선	112 이희진	113 이상수	114 이희주	115 안시영	116 도은석	117 김명희	118 현은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영희	123 박유진	124 이현나	125 이영숙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희영	129 조영희	130 박지현	131 김영희	132 박순화
133 안영신	134 김태희	135 박영희	136 영수진	137 심대희	138 김현숙	139 오영자	140 이태희	141 김희희	142 전지리	143 조혜숙	144 이영희
145 박태경	146 민현나	147 이희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영희	151 정영희	152 김희연	153 안영희	154 김영숙	155 권태은	156 임수미
157 고영희	158 김희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영숙	162 이희우	163 이은주	164 이희진	165 이희숙	166 이태희	167 이희진	168 정동경
169 김희란	170 유성희	171 이희진	172 황희남	173 김희정	174 이희영	175 박경민	176 김희진	177 신지영	178 김영	179 이희주	180 문종만
181 김진희	182 오영희	183 문지현	184 문지수	185 이희진	186 이희주	187 송희중	188 이희진	189 정은희	190 김은희	191 안희정	192 이영희
193 유영희	194 이희주	195 이희영	196 영수진	197 박은희	198 이희진	199 윤대희	200 최영희	201 김희진	202 김희진	203 정수희	204 정영신
205 박영희	206 양영희	207 오희진	208 H	209 박영희	210 최지은	211 이희숙	212 권희진	213 무영	214 황은희	215 박지현	216 윤민성
217 유영희	218 이희주	219 박영희	220 도영희	221 박순화	222 이희진	223 정희진	224 김희정	225 김희연	226 윤희진	227 윤희진	228 김희숙
229 김희진	230 정영희	231 김희희	232 남영희	233 남지영	234 남희진	235 김희정	236 박은희	237 오은희	238 노은희	239 이희정	240 최영희
241 임희숙	242 이희정	243 안희정	244 김희정	245 김희정	246 손희정	247 최수연	248 이희진	249 정희정	250 현희정	251 현희정	252 김희정
253 박영희	254 현영희	255 이희정	256 정영희	257 이희주	258 이희정	259 최영희	260 김희정	261 김희정	262 조지영	263 이희진	264 최영희
265 정희정	266 이희진	267 이희정	268 이희정	269 최영희	270 손희정	271 손희정	272 윤희정	273 변영희	274 최영희	275 김희정	276 김희정
277 김희정	278 이희정	279 신희정	280 이희진	281 민희정	282 이희주	283 민희정	284 이희정	285 김희정	286 최영희	287 조영희	288 정영희
289 이희정	290 조희정	291 민희정	292 박영희	293 윤희정	294 정희정	295 최영희	296 김희정	297 최영희	298 이희정	299 김희정	300 양희정
301 김희정	302 권희정	303 정영희	304 조희정	305 김희정	306 이희정	307 권희정	308 최영희	309 권희정	310 정영희	311 남희정	312 김희정
313 문희정	314 박영희	315 이희진	316 민희정	317 최영희	318 정희정	319 김희정	320 최영희	321 이희정	322 유희정	323 김희정	324 이희정
325 750204	326 김희정	327 김희정	328 최영희	329 이희정	330 김희정	331 민희정	332 정희정	333 이희정	334 유희정	335 이상희	336 최영희
337 김희정	338 최영희	339 전영희	340 정영희	341 김희정	342 윤희정	343 정희정	344 정희정	345 이희정	346 김희정	347 정영희	348 최영희
349 양희정	350 유희정	351 김희정	352 유희정	353 유희정	354 유희정	355 윤희정	356 최영희	357 전희정	358 최영희	359 최영희	360 최영희
361 최영희	362 정영희	363 최영희	364 정영희	365 정영희	366 박영희	367 정영희	368 김희정	369 정영희	370 송영희	371 정영희	372 김희정
373 최영희	374 최영희	375 최영희	376 김희정	377 최영희	378 최영희	379 최영희	380 김희정	381 김희정	382 김희정	383 김희정	384 최영희
385 정영희	386 최영희	387 김희정	388 최영희	389 최영희	390 최영희	391 최영희	392 최영희	393 최영희	394 최영희	395 최영희	396 최영희
397 김희정	398 정영희	399 최영희	400 김희정	401 최영희	402 최영희	403 김희정	404 김희정	405 최영희	406 최영희	407 김희정	408 김희정
409 김희정	410 최영희	411 최영희	412 최영희	413 최영희	414 최영희	415 최영희	416 최영희	417 최영희	418 김희정	419 최영희	420 최영희
421 김희정	422 최영희	423 최영희	424 최영희	425 최영희	426 최영희	427 최영희	428 김희정	429 최영희	430 김희정	431 최영희	432 최영희
433 최영희	434 최영희	435 최영희	436 김희정	437 최영희	438 김희정	439 최영희	440 김희정	441 최영희	442 최영희	443 최영희	444 김희정
445 최영희	446 김희정	447 최영희	448 김희정	449 최영희	450 김희정	451 최영희	452 최영희	453 최영희	454 최영희	455 김희정	456 김희정
457 최영희	458 최영희	459 최영희	460 최영희	461 김희정	462 김희정	463 최영희	464 김희정	465 최영희	466 최영희	467 김희정	468 김희정
469 최영희	470 최영희	471 최영희	472 최영희	473 김희정	474 최영희	475 최영희	476 최영희	477 최영희	478 최영희	479 최영희	480 최영희
481 최영희	482 최영희	483 김희정	484 최영희	485 최영희	486 최영희	487 최영희	488 최영희	489 최영희	490 최영희	491 최영희	492 최영희
493 최영희	494 최영희	495 최영희	496 최영희	497 최영희	498 최영희	499 최영희	500 최영희	501 최영희	502 최영희	503 최영희	504 최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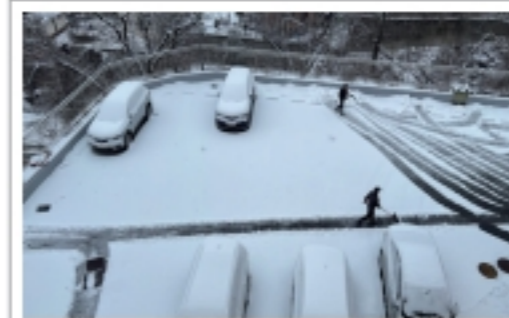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눈은날



▲ 눈은날



▲ 만두



▲ 만두



▲ 만두



▲ 소그림



▲ 신년예배특송



▲ 신년예배특송



▲ 예배후 등산



▲ 예배후 등산



▲ 우리는 다 나왔다



▲ 찜질방



▲ 찜질방



▲ 찜질방



▲ 청평힐링센터 전경

### 청평힐링센터 후원물품



# 목요 Precious Worship

## 목요기도회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김\*재(담도암재발, 장궁경부, 질, 직장전이) - CT검사 암기가 커지지 않아 감사하며, 임피지 면역항암제로 2번 더 하고 3월에 CT결과 보고 항암약을 바꾸기로 함,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최상의 약을 찾아주옵소서
2. 배\*경(폐암) - 3주 간격의 독성항암 주사제를 맞고 있는데 악성종양이 깨끗이 치유되고 부작용(숨가쁨, 기침, 오심, 통증, 불면 등) 치유되기 원합니다.
3. 전\*희(난소암, 복막전이) - 11개월 동안 지금의 면역항암제를 쓰면서 많이 회복되어 감사하며 더 이상 내상에 대한 불안이 아닌 완전관화로 끝까지 치유해 주시길
4. 김\*영(폐암) - 현재 13차 항암치료 중이지만 내성 없이 잘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 약으로 깨끗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5. 박\*정(난소암) - 항암중에 혈액수치가 최저로 떨어져 수혈 3팩을 맞고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련 모든 부작용이 호전되고 수혈받지 않고 항암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6. 장\*영(폐암) - 표적치료제로 치료 받고 있는데 전이된(목뼈, 폐, 고관절, 꼬리뼈) 부분도 깨끗이 낫기를
7. 유\*영(폐암, 흉막4기) - 폐암에 이어 흉막암 4기 진단 받았습니. 앞으로 17번 항암을 해야 하는데 잘 받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8. 서\*민(비인두암4기, 임파선전이) - 항암, 방사선 부작용(이명, 중이염, 청력약하, 눈시림, 구내염, 탈모, 손발저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랜 병마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도 주님께로 맡깁니다.
9. 김\*영(위장암) - 23년 8월에 위장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30번의 항암입니다. 12/3일 부대는 먹는 항암제로 치료받고 있는데 약이 너무 독하여 지금은 중단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0. 한\*웅(폐암4기, 뇌, 뼈전이) - 폐암에 점점 사라져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와 관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 황\*진(유방암, 간전이) - 림프관질환으로 인해 림프순환이 되지 않아 치료중입니다. 림프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지켜 주옵소서
12. 이\*옥(유방암, 흉선암) - 정기검진 결과 흉선에 뿌려진 암들은 반응 없이 그대로 이고, 심장도 모두 좋아져 이제 하루 한 알씩의 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3. 장\*순(유방암, 뼈, 림프전이) - 검사 결과 커지지 않고 약한 줄어 표적항암제 용량이 무리되지 않으면 그냥 쓰고 3개월마다 검사하고 힘에 반씩 주사 치료하기로 함. 부작용(관절통, 특관절, 구내염, 알레르기)치유하여 주시고 내성 생기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기를 기도함
14. 장\*순(유방암) 표적치료를 하는 동안 부작용 없이 잘 마치고 완치하여 주어진 사망 잘 감당하도록
15. 원\*분(담도암, 간전이) 항암제(팁소) - 12/30일 결과 암이 흐르지고 모양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16. 장\*숙(폐암) - 1/31일 검사 결과 암이 뇌로 전이되어 방사선치료를 2/10일부터 10번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치료를 잘 받아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고장날기를 기도합니다.
17. 김\*애(유방암) - 2월 말부터 항호르몬제 복용을 시작하였고 곧 방사선 치료도 받게 됩니다. 치료제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여주시기를
18. 이\*경(직장암, 폐전이) 직장암 수술 후 1년 뒤에 폐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폐에 생긴 결절이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회복되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19. 조\*구(위암, 비강부위 림프종) - 총 6번의 항암 중 5차 항암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중간 검사에서 이전 암부위가 깨끗해졌다는 판정을 받고 나머지 항암을 진행하는데 부작용 없이 잘 마치고
20. 김\*연(B세포 림프종) - 호흡기관의 원인인 폐기능이 회복되어 호흡능력(FEV1 40%)이 되기를 기도하며, 복강내 B세포 림프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완치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21. 이\*희(유방암) - 1/21일 항암약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소사일 일스 후 4번째 변경된 독성항암제인데 이번 항암약이 마지막 항암약이 되어 모든 암이 사멸되기를 기도합니다.
22. 장\*정(난소암) - 항암효과가 제대로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치의에 대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23. 최\*숙(속종암) - 독성항암 끝내고 다시 항암합니다. 약이 잘 듣기를 원하며, 기침 때문에 김나나이트 치료가 연기되었습니다. 속이 기침이 멈추고 다시는 머리와 눈에 통증이 생기지 않기를
24. 김\*덕(위암, 골반, 치골전이) - 항암 후 1/6일 결과 암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암요양병원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집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25. 장\*희(유방암 4기) 1월 중순에 새로운 PET-CT 결과 듣습니다. 주께서 이미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26. 허\*영(난소암) 22년 난소암 4기로 수술 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한 임상항암약이 잘 반응하여 1400까지 올라간 암수치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갈 수 있기를
27. 박\*진(다발성 골수종) - 혈액수치가 정상이 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재발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 선\*석(폐암) -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까지 후유증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2/17일 병원 진료 있는데 좋은 소식 듣기를 기도합니다.
29. 방\*만(폐암) - 항암 25년 하였고 현재 새로운 약으로 3차 항암 시작했습니다. 항암 후유증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악성 종양이 모두 치유되어 다음 검사시 좋은 소식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http://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http://www.youtube.com/user/miholoveone)



## 서울역 이야기

###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포대자루를 부으며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봤습니다. 놀래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봉사자들은 늘 해오던 작업이기에 아무런 일 아니라는 듯 일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 과정도 이렇구나'하며 당연한 말을 혼자 읊었습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저절로 커피가 땅에서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노숙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하나가 모두 후원자와 봉사자의 손길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을 끓여 오시는 분, 종이컵 500여개를 옮겨 차 트렁크에 넣는 모습, 전도지를 고무줄로 묶는 모습, 컵라면을 놓을 접이식 테이블을 옮기시는 분주한 모습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추위로 다 터서 거칠어진 노숙인들의 손은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또 무명으로 보내주신 핫팩을 전달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도 역시 소중한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소중한사람들 교회



###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1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15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에는 7일, 14일, 21일 28일 이대 부속 초등학교 학부모 성경 통독반, 4일 서부침례교회 7일 에클레시아 II일 에클레시아 14일 조이어스교회 18일 함께올래 23일 인천중앙교회 24일 강동은누리 교회 25일 모래내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김미정, 김성수, 김순희, 김명옥, 김영옥, 김진숙, 김현숙, 박진희, 서영호, 송경옥, 이소영, 이영훈, 임윤엽, 양지니, 전두희, 정성훈, 조희진, 진경희, 최경희, 최금연, 정성훈, 최인선, 황부영, 황귀옥, 황보혜, 한에스더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청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 화, 이황희... 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진승연, 정종대, 송기승,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다양한 봉사 참여

###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속초 성경통독팀과 소중한찬양단
- \*서부침례교회 특송
- \*소식지 우편물 봉사를 해주신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1월 11일 (토요일) 14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1월 25일 (토요일) 27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팀과 개인봉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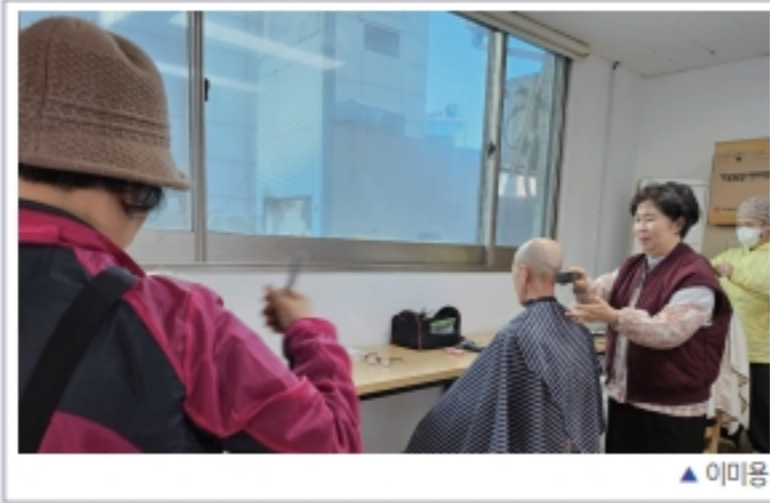
모두 감사합니다



▲ 서부침례교회 특송



▲ 이창우 원장님



▲ 이미음



▲ 소중한찬양단



▲ 이대부초성경통독반 찬양인도



▲ 수요일 설교자 정기중 목사님

## 후원물품

- \*햇떡을 후원해주신 무명, 소망교회
- \*육개장을 후원해주신 인천중앙교회
- \*갈비를 후원해주신 이상훈님
- \*설날을 맞이해 절편을 후원하신 권경희님
- \*소고기를 후원해 주시는 하나프라임
- \*쌀을 후원해주신 무명, 아현성결교회
- \*굴을 후원해주신 서부침례교회, 서영호님
- \*여성 운동복을 후원해주신 조이이스교회
- \*매달 충분한 분량의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시는 노아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3	푸드뱅크	빵 부식	5박스	15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4	서영호	굴	4박스	14-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6	푸드뱅크	빵 부식	5박스	17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9	무명	햇떡	2박스	1/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0	무명	쌀 20kg	19포	1/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10	푸드뱅크	빵 부식	5박스	1/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2	아현성결교회	쌀	40포	1/13-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13	푸드뱅크	빵/ 부식	4박스	1/4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14	조이이스교회	여성운동복	2박스	1/19,26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6	이상훈	갈비	2박스	1/17-	급식	서울역 거리노숙인
1/17	푸드뱅크	빵/ 부식	6박스	1/19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17	김명옥	커피	1달치	1/19-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0	푸드뱅크	빵/ 부식	6박스	1/21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23	인천중앙교회	육개장	200개	1/23,26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서울역
1/23	(인)노아	고기	5박스	1/24-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24	푸드뱅크	빵/ 부식	5박스	1/26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4	권경희	절편	2박스	1/24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27	푸드뱅크	빵/ 부식	5박스	1/28-30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30	서영호	굴	4박스	1/30-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31	소망교회	햇떡	120개	1/31,2/2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서울역
1/31	푸드뱅크	빵/ 부식	6박스	2/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31	하나프라임	소고기	5박스	2/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8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8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42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직장,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황우진, 김연자, 이혜옥, 권효정, 배운경, 이재희, 황영자, 정은정, 정중순, 전상희, 김동일, 최성숙, 김홍덕, 정경희, 장경순, 장호형, 김희경, 방형덕, 원영분, 정현숙, 허혜영, 박수진, 김자애, 이희경, 유옥렬, 서정민, 김순임, 한치용, 조일규, 김주연, 선종석, 임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재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아델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구현주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형진님이 목 튜브 교체했습니다. 9차까지 맞은 스펀라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펀라자 주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89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유정옥 사모의 신앙생활을 담은 에세이  
고아가 된 어느 남매를 맡아 키운 이야기  
생면부지의 암환자를 봉양한 이야기  
먼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등 삶의 굽이마다 펼쳐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정가 10,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의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서울역 노숙인들 곁에서 2년간 함께 해온 유정옥 사모가 그곳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워할 때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정가 12,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기적의 시작>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의 토지 구입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의 병원건물 건축 과정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성일 목사님...  
이성일 목사님이 암 환우들과 5년간의 눈물과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가 주옥같이 적혀 있다.  
암이라는 불치의 병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기적의 시작.  
31명의 환우들이 완전한 치유를 통해 얻은 이 시대의 치료의 교과서 "기적의 시작"은 계속될 것이다.



기적의 시작 (이성일·유정옥·정가 14,000원)

##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 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법천지로 변했다. 무장 강단의 폭등으로 경찰서와 은행이 불타고 도시에 흉탄이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곳곳에 사신이 굴러다니고 약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 나라엔 현재 대통령이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전격 사퇴했다. 국회도 없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단은 고도소 2곳을 습격해 수천 명의 범죄자를 탈옥시켰다. 국제 공항과 항구, 최소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했다. 다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힘겹게 병원으로 옮겨가는가 하면 불에 탄 차들과 타이어, 부서진 건물 잔해가 거리에 널려 있다. 하지만 폭등을 막을 경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민을 도와야 할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1월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만료돼 국회의원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은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할 인력과 장비, 병상, 약품, 혈액 부족으로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혼란을 틈타 무장 강단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아리엘 앙리 총리 퇴진을 요구해 왔다. 앙리 총리는 지난해 7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말 이틀 반복하고 케냐로 출국했다. 케냐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려 한 것이다. 아이티 사회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베타마을에 이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풍칼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흰 눈으로 온 천하를 덮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멀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봄이 오도록 수고 하시는 것이랍니다.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봄기운을 땅과 하늘에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입니다. 언젠가는 봄이 오겠지요. 동토의 땅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목적 헌금을 보내주신 미국 뉴저지의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고무원, 구명선, 김가람, 김영림, 김영선, 김우재, 김종명, 김태희, 나은선, 노아, 도문식, 문영숙, 박금용, 박민희, 박철규, 박혜수, 서해주, 성찬영 송기승, 신형진, 유광현, 유에스더, 유영재, 유정숙, 윤원식, 이고은, 이세린, 이영관, 이주희, 이은주, 이재욱, 임맹자, 임윤엽, 장종숙, 정경희, 조미영, 최진옥, 한은숙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감)안양감리교회, (예장) 경주제일교회, 메시지 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관 감사 헌금을 보내주신 온누리 약국 복지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유정희,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 유애선, 유진상 황귀용, 윤정은, 이해란, 한에스더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헌금을 보내주신 김미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김미영, 신혜영, 조경숙, 한종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프린터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황우진, 김연자, 이혜욱, 광효정, 배운경, 이재희, 황명자, 정은정, 정중순, 전상희, 김동일, 최성숙, 김홍덕, 정경희, 장경순, 장호형, 김희경, 방형덕, 원영분, 정현숙, 허혜영, 박수진, 김자애, 이희경, 유옥렬, 서정민, 김순임, 한치용, 조일구, 김주연, 선종석,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운,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구현주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숙 드림

# 2025년 1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5년 1월 01일 ~ 1월 31일까지)

## ●십일조 헌금●

강덕희(320,000)	고무원(200,000)	구명신(200,000)	김가람(420,000)	김영림(1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1,9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우재(100,000)	김종명(200,000)	김태희(150,000)	나은선(300,000)
노아(1,000,000)	도문식(500,000)	문영숙(200,000)	박금용(100,000)	박민희(50,000)	박철규(250,000)
박혜수(500,000)	박혜숙(1,000,000)	서혜주(1,000,000)	성찬영(550,000)	송기승(150,000)	신형진(450,000)
신혜영(250,000)	유광현(400,000)	유에스터(330,000)	유영재(350,000)	유정옥(200,000)	윤원식(200,000)
이고은(780,000)	이상용,이한나(520,000)	이세린(250,000)	이영관(430,000)	이은주(1,000,000)	이주희(440,000)
이주희(730,000)	임영자(160,000)	임윤업(200,000)	장종숙(120,000)	정경희(200,000)	조미영(100,000)
최진옥(200,000)	한은숙(300,000)				

## ●개인 감사헌금●

강덕희(70,000)	강성희(20,000)	강윤옥(50,000)	곽혜란(50,000)	권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김갑희(50,000)	김갑희(4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미(50,000)	김동민(10,000)
김명옥(80,000)	김미선(50,000)	김미영(20,000)	김미정(20,000)	김민지(100,000)	김선아(100,000)
김선희(50,000)	김성희(3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영림(20,000)	김용수,송연숙(200,000)
김인수(40,000)	김정훈(10,000)	김진환(100,000)	김태세(40,000)	김태희(8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서(20,000)	김현숙(30,000)	김희정(50,000)	나종숙(60,000)	노원균(30,000)
박대수(15,000)	박동준(10,000)	박문희(4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50,000)	박영일(100,000)
박인혜(40,000)	박정애(30,000)	박정환(10,000)	박진희(50,000)	배희영(10,000)	변경자(20,000)
석영란(6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송계순(30,000)	송기승(30,000)	심요엘(10,000)	안형욱(100,000)
양복길(13,000)	양은정(50,000)	오경남(20,000)	오선향(100,000)	오지석(100,000)	우건화(50,000)
원신애(50,000)	유서영(50,000)	유애선(200,000)	유재학(120,000)	유정옥(10,000)	유진상,황귀용(200,000)
윤정은(271,700)	윤화(70,000)	이강혁,이강현(30,000)	이기형(40,000)	이미달(100,000)	이보영(10,000)
이상훈(10,000)	이상용,이한나(500,000)	이상혜(5,000)	이연옥(10,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웅남(30,000)	이원욱(100,000)	이유경(5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민영(50,000)
이인영(50,000)	이재성(5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40,000)	이지은(10,000)	이춘(100,000)
이태희(30,000)	이현경(50,000)	이혜란(200,000)	이혜숙(50,000)	이황희(30,000)	장광욱,장자인(50,000)
장란숙(100,000)	장종숙(20,000)	장지호(50,000)	전명주(100,000)	전상희(50,000)	전영원(30,000)
정영남(10,000)	정영애(20,000)	정운(50,000)	정은수(30,000)	정일권(30,000)	정주연(50,000)
정태현(10,000)	정혜영(100,000)	조민화(10,000)	조을남(10,000)	조진영(50,000)	최성은(10,000)
최영화(40,000)	최진복(20,000)	최진자(100,000)	하영숙(20,000)	한경숙(10,000)	한보성(100,000)
한송희(100,000)	한에스터(200,000)	한창현(20,000)	허동욱(20,000)	홍복실(100,000)	홍은숙(50,000)
황부영(100,000)					

## ●교회 감사헌금●

(가감)벨렐교회(100,000) (가감)선재중앙교회(100,000) (가감)선한목자교회(100,000) (가감)안양감리교회(200,000) (가감)식도성결교회(50,000)  
 (예정)경주제일교회(200,000) (예정)문호교회(100,000) (예정)양의문교회(30,000) (예정)하나로교회(100,000) 메시지교회(5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예복교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 ●기관 감사헌금●

(주)GBP(50,000) (주)컨피테크(100,000) 갓피플웨딩(50,000) 계영산업(50,000) 길벗여행사(100,000) 로고스터디카페(20,000)  
 마라나타(30,000) 연씨마수학원(100,000) 예수그리스도(30,000) 은누리약국복지회(300,000) 창세에스엔티(50,000)

## ●미안마고아 선교헌금●

(주)GBP(4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미영(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송명옥)(40,000)	유경미(40,000)	윤혜경(40,000)
이상자(40,000)	이상자(4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추윤희(40,000)				

## ●중국고아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	-------------	-------------

##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	-------------	-------------

## ●북한고아 선교헌금●

(주)GBP(4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영(5,000)	박승호(5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순주(2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추윤희(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 ●북한선교 헌금●

(주)엔페이브(100,000)	김광훈(김미영)(100,000)	남가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향자(5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전해봉(20,000)	지선옥(20,000)		

##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박진희(40,000)
-------------	-------------

##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은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20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미영(100,000)	김상진(손향)(40,000)	김화련(50,000)
박서준(100,000)	박선민(40,000)	박선주(80,000)	새산성교회(40,000)	손향(40,000)
송현주(80,000)	안서영(송명옥)(4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이혜란(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30,000)	최준호(80,000)	추윤희(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사양종교사상의이해(50,000)	홍정희(40,000)	홍정희(40,000)		하성화(40,000)

## ●아이티 선교헌금●

김인수(40,000)	무명(300,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혜진(10,000)	성찬영(50,000)	신혜영(25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준호(30,000)	한종식(200,000)



# 2025년 01월 CMS

(2025년 01월 01일 ~ 01월 31일까지)

\*1월 26일이 결제일이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설 연휴로 인해 2월 초에 결제가 이루어져 1월 후원 명단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명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금내(30,000)	강도숙(10,000)	강연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전혁(1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유경(30,000)	고정숙(1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태준(1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수(30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희(10,000)	김민경(30,000)	김민자(2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병식(100,000)	김보경(10,000)	김보연(5,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성하(5,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현(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민(1,000)	김영주(30,000)	김영진(40,000)	김영진(10,000)	김오례(10,000)
김옥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주(10,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춘희(5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한나(5,000)	김향순(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효진(강철민)(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은실(10,000)	노한준(3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다은(5,000)	박명희(10,000)	박문희(2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영(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차은미)(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오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기준(10,000)	서상숙(20,000)	서혜원(2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송하정(10,000)	신영주(10,000)	신용순(1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훈(5,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창훈(4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말(10,000)	유준서(5,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완(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례(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복자(100,000)	이산록(20,000)	이삼종(5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은혜(50,000)	이은혜(50,000)	이의신(10,000)	이의화(10,000)	이재희(백만순)(1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민(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중수(10,000)	이중수(40,000)	이주아(20,000)
이주희(50,000)	이준옥(110,000)	이지원(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혜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겸(5,000)	정재이(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혜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찬(10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미원(6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환(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10,000)	최경애(2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혜(1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윤구(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이재(2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경순(5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인애(3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윤희(20,000)	홍정희(20,000)	홍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